

“내 손 거쳐간 책은 모두 자식 같습니다”

‘아트라인’ 제판실 이재원씨의 15년 외길

책 한 권의 원고가 편집을 거치고 나면 ‘제판’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곧바로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판을 짜는 작업이 그것이다. 얼핏 간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정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 일을 ‘아트라인’의 이재원(35) 과장은 ‘예술’이라고 부른다.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아트라인’은 3년 전 복사기도 없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닳을 올려 현재는 스캐너실, 제판실, 교정실을 두고 편집에서부터 제판, 인쇄, 제본까지 대행하는 업체. 이재원씨는 그 가운데 제판실을 책임지고 있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고도의 정밀성과 전문성 필요한 직업

제판실의 작업은 크게 ‘소첩’과 ‘대첩’으로 나뉜다. 먼저 ‘소첩’은 촬영기로 원고를 촬영해 밀착기와 현상기를 거쳐 2도 인쇄의 경우 2장, 컬러의 경우 적, 황, 청, 흑 4장의 필름으로 색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때 사진·일러스트 등의 화상(畫像) 부분은 스캐너실에서 분해돼 넘어온다. ‘대첩’은 이 필름들을 편집자가 지정한 대로 재편집해 8면 또는 16면 접지된 상태로 인쇄할 수 있도록 커다란 ‘깔판’ 필름에 붙이는 과정이다.

‘아트라인’에서 취급하는 출판물은 삼성출판사의 단행본, 전집류와 《로드쇼》, 《시사 컴퓨터》 등 월간지, 예술의 전당 홍보물 등. 제판실에서 일하는 이들은 모두 8명인데, 한 달에 천 페이지 이상을 일일이 수작업한다.

“일요일이 없는 일입니다. 하청업체라든가 다 그렇지만 주문한 사람에게 신용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야근, 밤샘이 허다해요. 특히 월간지 일을 하다보니 지난 15년간 한번도 크리스마스에 쉬어본 적이 없어요.”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통통 붓고, 삼일쯤 밤샘을 하고 나면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때보다도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때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난 경우. 여러 공정을 거치는 출판업의 속성상 한 고리에서 실수가 있었을 때 유실되는 제작비의 부담이 엄청나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이면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이 안된다’는 긴장감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가 많다. 물론 성공적으로 책이 만들어져 서점에 진열된 모습을 볼 때의 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다.

22 출판저널

스물한 살 되던 8년, 일당 삼천원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작한

일이 벌써 15년째에 접어든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틈 없이

‘청춘을 바친’ 일이기에 애착도 강하다.

지정대로 아귀가 꼭 맞았을 때

느끼는 즐거움, 자신의 손을 거쳐 서점에

진열된 책들을 볼 때 찾아드는

말할 수 없는 금지는 그의

고단한 작업을 버텨주는 힘이다.

“글쎄요, 왠지 그 책이 다르게 느껴져요. 이를테면 자식 같다고 할까요.”

스물한살에 일당 삼천원으로 시작

그렇게 이재원씨가 제작한 ‘자식’들이 이제 수천권에 이른다. 제판 일에 뛰어들 것이 스물한살,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갓 상경한 81년이니 그간 우리나라 제판업의 산 증인이라 할 만하다. 8남매 중 가장 먼저 서울에 올라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던 형(현재 경향신문 윤전실 근무)의 주선으로 일당 삼천원을 받으며 당시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시작한 일이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틈도 없이 ‘청춘을 바친’ 일이에 그만큼 애착이 더한 것인지도 모른다. 박경리의 《토지》나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홍정욱의 《7막 7장》 등 대충 꼽아본 베스트셀러만도 상당수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물론 있어요. 매킨토시를 사용하는 곳이 날로 늘고, 그만큼 인력도 덜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몇년 간의 수련을 거쳐서 할 수 있었던 이 일이 이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돼가고 있어요.”

‘천직’이라는 금지로 생활

실제로 ‘아트라인’에서는 6월 말에 매킨토시와 출력기를 들여놓을 예정이며, 내부의 검토를 거쳐 7월 말부터는 사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재원씨는 예전에 주류를 이뤘던 활판 작업이 모두 읍셋으로 바뀐 것을 상기하며 조심스럽게 제판업을 ‘사양사업’이라고 진단한다.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하겠지요”라고 덧붙이기도 한다.



촬영, 밀착, 현상을 거쳐 분해된 필름들을 재편집해 8면 또는 16면 접지된 상태로 인쇄할 수 있도록 깔판 필름에 붙인다. (위) 원고의 칼자국이나 흠집은 일일이 붓질로 덮어준다. (아래)

그러나 일가를 이룬 사람의 일하는 모습만 큼 경이로운 것은 없다. 지정대로 아귀가 꼭 맞았을 때 ‘쾌감’을 느낀다는 이재원씨의 기민하고 숙련된 손놀림은 ‘예술’이라는 표현을 실감나게 한다.

하루에 담배를 두 갑씩 피우며, 일을 마치면 직원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것으로 집중을 요하는 작업의 스트레스를 푸는 이재원씨. 네

살과 두 살 된 형제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는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부족한 것이 늘 마음 섭섭하다.

“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못할 일입니다. 내 손을 거쳐 책이 나온다는 것, 그걸 독자 분들이 본다는 금지, 그것 하나예요.”

—한 강 기자